

3. IBRD(세계은행) 시대의 구조조정 방향

- (배경) 외환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게됨에 따라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IBRD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됨
- (IBRD의 입장)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이 유효하며 그 과정에서 채권은행과 채무기업간의 의견교환이 필요함. 정부는 과거와 단절하는 차원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, 기업들은 주주가치를 우선시하고 현금유동성을 중시하는 경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함

□ IBRD의 등장 배경과 영향

- (배경) 경제위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긴급자금 동원능력이 뛰어난 IMF가 앞장서서 개입하여 개괄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지만 실제로 구조조정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IBRD(세계은행)와의 정책협의에 상당히 의존하게 됨
 - 국내 외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IMF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시 경제와 국제수지 측면에서의 현안들이 점차 줄어듦
 - 이제는 금융시장 구조개혁,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, 경쟁정책, 노동시장 개혁, 사회안전망 확충, 공기업 민영화 등 IBRD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로 관심이 집중되어 IBRD가 명실상부한 구조조정정책의 권고기관으로 부각됨
- (IBRD 지원 내용) 570억 달러에 달하는 對韓 구제금융계획을 보면, IMF가 210억 달러, IBRD가 100억 달러, ADB가 40억 달러, 일본이 100억 달러, 기타가 12억 달러로 구성되어져 있음
 - IBRD가 제공하는 100억 달러는 경제재건차관(ERL: Economic Reconstruction Loan) 30억 달러, 구조조정차관(SAL: Structural Adjustment Loan) 70억 달러로 예정되어 있음
 - IMF 프로그램이 거시적인 배경에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면, IBRD 프로그램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차관의 비중이 높음
 - 이미 IBRD는 지난해 12월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30억 달러의 경제재건차관을 제공한 후 금년 3월에 금융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

구조조정차관으로 2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으며, 추가적인 50억 달러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 중임

- (**국내 구조조정에 미칠 영향**) IBRD가 구조조정차관을 제공하는 주된 목적이 금융부문의 구조개혁, 기업부문의 개혁,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, 경제정책 기능의 재정립 및 조화 등에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IBRD의 영향이 중대될 것으로 예상됨
-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, 금융시스템의 회복, 자본시장 육성과 기관투자가 양성화, 부실 채권 정리시 정부의 역할, 기업의 회계투명성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보완 조치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□ 구조조정에 대한 IBRD의 입장¹⁾

- (**구조조정의 순서 및 소요 기간**) '외환시장 및 자금시장의 안정성 회복 → 자본 자유화 확대 → 금융부문의 개혁 → 거대 산업집단의 구조조정'의 순서로 1~2년 내 완료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
 - 특히,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에서는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방식이 유효하며, 그 과정에서 채권은행과 채무기업, 그리고 채권은행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할 것임
 - 따라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면서, 은행별 부실 기업 현황 파악 및 정리를 가속화해야 함
- (**기업의 구조조정 전략**) 기업의 구조조정은 주주가치 및 투자수익률(Return on Investment)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하며, 필요한 장기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임. 또한 이를 담당하는 재무분석 전문가도 영입할 필요가 있음
 - 사업 및 자본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단위별 가치를 분명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, 지급보증 회사간 계정과 각종 회계 감사 보고 등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

1) 지난 5월 7일과 8일에 개최되었던 IBRD 세미나, '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'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근거로 하여 IBRD의 구조조정 방향을 약술하였음

- 기업들은 현금·유동성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, 구조조정의 핵심은 사업 구조조정이며 부동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은 이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할 것임
- 또한 구조조정은 기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즉, 미래의 진로까지 설정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

- **(정부의 역할)** 정부는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구조조정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, 각자에게 적합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,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제반 제도 및 규제를 확실히 철폐하여야 할 것임
- 정부는 단순한 제도 수정 및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니라, 과거와 단절하는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 1~2년 안에 혁신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
- 대기업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
- 특히 기업들이 부실해지는 일반적인 원인은 과도한 성장전략, 비합리적인 신용 팽창, 불투명한 회계시스템, 위험가중치 누적 등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것임

- **(구조조정 성공 사례의 시사점)** 구조조정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, 수행 과정에서 강력한 상의하달식 리더쉽과 가치창출에 관련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,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추구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였음
 - 가치 창출의 척도로서는 현금흐름지표와 투자자가 보는 수익률이 우선 고려되었으며, 다른 회사의 일류사업 부문을 반드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음
 - 한국의 경우, 투자자들이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지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는 소위 '투명성'이 부족하며, 이는 회계제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경영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

(김 회 성 hiskim@hri.co.kr ☎ 724-4020)